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캄보디아의 정지웅/은영 선교사입니다. 지난 동역서신 이후의 이곳 소식을 나누며, 감사와 기도를 나눠드립니다.

## 가르치는 사역 대학 사역

###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가



지난 동역서신에서 나왔던 한 학생, 학습과 언어 장애가 있는 싸붓(NPIC)을 이후에 만났습니다. 교회로 두 번 찾아왔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과 성경책,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가 되길 소원합니다. 앞으로 싸붓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이 열리고, 말이 또렷해지며, 힘과 설득력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실어 나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 잃을 것이 없는 이와, 잃을 수 없는 이



NPIC 는 국립대학입니다. 한국 교수들은 가르치는 일 외의 행정과 재정에 일체 관여하지 못합니다. 교실마다 녹화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입장으로 보면 무보수로 헌신된 고급인력을 쓸 수 있으니 잃는 것이 없다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열린 문을 통해 들어와, 잃을 수 없는 것, 영혼을 취합니다. 이번학기 정선교사가 전자과 4 학년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는 첫 시간, 잠시 마음에 목도를 드린 후, 소개와 함께 캄보디아에 오게 된 간증을 나눴습니다. 신앙을 밝히고, 학창시절의 고민과 꿈, 그분의 부르심과 새로운 삶의 가치, 이후의 인생의 중요한 결단들(유학, 결혼, 선교, 캄보디아)에 대해 자연스럽게 한 맥락으로 엮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두 학생<sup>분레앙·베하</sup>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기회를 감사하며 교회로 불렀습니다.

NPIC 에서의 한인교수예배를 시작한지가 만 3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은 '선교와 예배'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외 친교와 모임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헌신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희가 3 번의 캄보디아 내 선교 지원의 헌금을 드리고, 성경책 500 권을 구입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2014 년 새로운 팀사역 헌신을 받고, 3 명의 예배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수요예배는 저희가 잃을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이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더하시길, 말씀을 전하는 정지웅 선교사에게 은혜를 더하시길 간구합니다.

### 첫 발을 내딛은 예술대학 PPIIA

지난 10 월 첫 학생 23 명을 받고 첫 입학식을 하고, 지금 첫 학기 수업이 진행중입니다. 그전에 학생을 선발하는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초중고에 음악과 미술 시간이 전혀 없는 캄보디아, 과연 어떠한 학생들이

예술대학에 지원을 할까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피아노 음이 5~6 개라 하고, 또 다른 학생은 자기가 어떤 피아니스트가 멋있게 연주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손이 문어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물으니, 잔치에 가수 밴드로 왔던 키보드 반주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직접 피아노를 쳐봤다며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알고보니 그가 친 피아노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건반 프로그램이었습니다<sup>(사진 상)</sup>. 이 모든 것이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다 지나면 역사의 에피소드가 될, 처음이라 귀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지웅선교사는 음악강의와, 작곡 제자를 한명 받았습니<sup>(사진 아래)</sup>.



정은영선교사는 교양 영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선교사는 교무처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는 비전에 많은 배움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교직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전문인 사역의 현장에서,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제자 교회 JEJA Church

### 요리대회 Cook Contest

지난달 요리대회를 하였습니다. 각 팀은 식재료 15000 리엘 <sup>\$4</sup> 안에서 각각 10 인분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며, 이후 심사를 통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신났습니다. 그야말로 지지고 볶는 소리로 가득찼습니다. 음식은 모두 참 맛있었습니다. 서로가 만족하며 모여 사진을 찍어 자기들 페이스북에 올리었습니다. 하지만 요리대회의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동안 마음에 품고 양육했던 몇 지체들로 하여금 리더쉽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 성경퀴즈 Bible Quiz



보통 4 개월정도인 성경공부 교재나 주일 설교의 한 시리즈를 마치면, 성경 퀴즈대회를 엽니다. 단답식부터 요절 암송까지 난이도의 차등을 두어 1,2,3 등을 선발하였습니다. 온유가 선물 포장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오기전에는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과



구절을 머리와 가슴에 기억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작더미가 있어야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1 등을 고등학생이 하였습니다. 소위 멋있는 교회오빠(대학생)들의 체면이 구겨진 날이었습니다.

### 말씀 묵상 훈련 ISG 2 기 Interactive Searching God

인터넷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서로 나누는 ISG 는 1 기 사도행전을 마치고, 지금 2 기인 고린도전서가 진행중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은사에 대한 진지한 초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좋은 모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영혼을 깨워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나 선교사님 중 1973 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래함 목사님 집회에 부모님을 따라갔었다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필리핀 선교사는 조용기 목사님 집회에서 헌신하셨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 약 40 년이 지나 캄보디아에 계신 것입니다. 저희 ISG 훈련생들이 매일 대면하는 말씀에 거룩한 부딪힘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 다리사역: ACE Advanced Course of English, 한글반

토요 영어와 한글 교실은 3 과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4 과정<sup>1</sup>년을 마치면 시험을 거쳐 교사로 세우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나 교실을 만들어 가르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켜보고 있는 단계지만, 어학원의 사역과 이후 학교 사역으로의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미국에서 오신 김영호/전덕희 선교사님 내외분이 영어와 한글 수업에 동역해주시고 계십니다. 언어 훈련중인 두분이 현지 영혼을 만나시는 첫 사역을 저희가 함께 시작하셨다는 것이 또한 저희에게 큰 감사입니다.

## 새로운 설교시리즈 ‘교회’ The Church (Book of Acts)

### 종이교회 Paper church 를 만들다



미국에 마을이 형성될 때,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곳을 향하는 길들을 내어 집과 생활터를 만들었던 것처럼, 캄보디아는 각 동네의 중심에 절이 있습니다. 이후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경과 용어들이 번역될 때, 많은 어휘를 불교에서 그대로 차용해 왔습니다. (한 예로, 교회와 절을 지칭하는 말이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예배의 가치는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신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그분을 진정 바라보게 됩니다.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교회는 신성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심장에서 새로운 피를 품어 온 몸으로 흘러 움직이듯이, 진리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생명력있게 움직이시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 The Church 를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전 함께 종이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풀과 종이 가 아닌 그들의 손에 흙과 벽돌을 쥐어 나를 것을 바라봅니다.

### 첫 헌물 : 선풍기 (Acts 4)

사도행전을 통한 교회 설교는 진정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와 모임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때에, 한 형제가 제게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인지 물으니, 자기들이 몇주전 설교를 듣고, 함께 헌금을 걷었는데 교회 필요한 것을 사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13 달러였습니다. 이 얼마나 값지고 기쁜 순간이었는지요. 이것은 새로운 신호였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맡겨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택해 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주, 형광등 하나와 선풍기 하나를 사서 벽에 달았습니다. 참 값진 선풍기입니다.

### 첫 소그룹 리더 임명 (Acts 6)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사역에 전념하며 첫 일곱 집사를 교회에 세우는 설교와 함께,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네 명의 소그룹 리더를 세웠습니다. 찌보완, 뽀씨이(남), 피롬, 뽀씨이(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동안 교회내에서 신임과 인정을 받아온 이들입니다. 12 월 까지 리더훈련을 통해 1 월부터 정식 소그룹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교회의 리더쉽의 주체가 서서히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 단기선교사 파송 (Acts 13)

지난 17 일, 사도행전 13 장의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 한 말씀을 나눈 후, 저희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감뽕짬 단기선교는 3 년째지만, 교회가 단기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호칭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선풍기를 달고,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단기팀을 보내는 것이 교회안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겠지만, 저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3 년전 이 땅에 들어온 후,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 주일학교 JEJA Basic



그동안 교회사역의 또하나의 새로운 시작은 주일학교입니다. 그동안 운유와 주언이도 주일에 인근의 한인교회에 보내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제자교회가 캄보디아 예배요, 주일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한명의 헌신된 교사를 보내주시어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온 2 세 타마라 자매입니다. 그래서 운유와 주언이의 친구와 함께 5 명의 아이들로 주일학교(초등부)를 시작했습니다. 옥상을 주일학교 장소로 정하고, 목공소에서 나무를 사, 청년들과 함께 자르고 못박아 우선 쓸 수 있는 테이블 두개와 계단문을 달아 11 월 첫주에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5 명의 아이들이 학교와 이웃의 캄보디아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캄보디아 직원의 두 아이도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4 주동안 매주 새로운 아이들이 하나 둘씩 더하시며 교회가 점점 아이들 놀이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12 월부터 보조교사를 두고, 교사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영어 주일학교가 캄보디아 사역으로 갈 것으로 여기나, 또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 있다는 마음도 가집니다.

## 2013 감뽕짬 단기선교 2013 Kampong Cham Mission

세번째 감뽕짬 단기선교가 지난 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sup>11.22-24</sup>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 같은 사람 Oneness

이번 단기선교에서, 가장 절정을 만든 순간을 꼽으라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지인입니다. 선교 티셔츠(연두색)를 입고 있지 않았다면, 누가 팀원인지, 누가 고아원 아이들인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교사는 현지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요. 선교사의 한계, 아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Episode: 케익은 원래 11월 생일자를 위해 준비했는데, 오히려 12월부터 여파가 있을 수 있다하시어, 주인공 없는 축하로 끝났습니다.

### 스킷드라마 '4G', 그리고 골리앗

이번 단기선교의 주제는 4G<sup>God is Good, Good is Great</sup>였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점 둔 것은 스킷드라마였습니다. 정은영 선교사의 세번째 대본입니다. 모세, 다윗, 나사로가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삶에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회상하며 이어지는 형식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등장하며 마치게 됩니다. 그중, 다윗 이야기 속의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형제가 바로 지난 동역서신에 기도부탁을 드렸던 믿음의 문턱에 서 있는 이, 헤잉<sup>Heng</sup>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아멘!'을 외쳤습니다.



### 진짜사나이 Five guys

우기를 지나며 고아원벽 앞의 땅이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낮아진 땅을 흙으로 매구는 일에 곡괭이 5 인방이 거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시골에서 부모님 농사일을 돕던 이들이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진짜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움직인 행복한 마음, 누가 주신 것일까요. (그분도 함께 일하셨었습니다.)



### 사랑의 나눔



이번 선교를 위해 팀이 티셔츠를 만들어 선교기금 마련을 했습니다. 고아원을 오가는 버스비와, 쌀 500kg, 신발 40 켤레가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회비를 걷고,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팀원들도 현지인입니다.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값지고 귀하 보시었습니다. 현지교회가 또다른 곳으로 단기선교를 가는 일은 분명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채워지길 기도하고 함께 노력했습니다.



두 주간의 예배헌금을 작성하고, 친구와 동료에게 티셔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한 것 이상의 풍성한 사랑의 선물을 고아원에 주셨습니다. 모든 과정은 팀원들에게 또다른 놀라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 더 깊은 곳으로

김영익 선교사님께서 고아원에서 40 분정도 차로 이동하는 고무농장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시어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고아원생들이 사역자가 됩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간식을 나눠주고, 마을 아이들을 업고 놀아줍니다. 분명 양쪽 아이들에게는 서로가 가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더 부유한 이들이 누구인지 보았습니다. 저희 선교팀도 예배를 거들고, 스킷드라마를 공연했습니다. 호응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세 그룹이 만났습니다. 다수의 고무농장 아이들, 소수의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저희 단기팀원들, 모두가 하나님께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선교의 현장,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고아원에 돌아와 아쉬움과 함께 내년을 약속하고, 늘 하던대로 점프(Jump)로 마무리했습니다.



## 새로운 비전

캄보디아 사역의 4 년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니 저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깜뽕짬 단기선교와 더불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품게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깜뽕짬을 시작으로 캄보디아내 새로운 선교지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허락하시면 제자교회를 통해 캄보디아내의 미자립 현지교회를 돕게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저희가 힘써 양육하고 있는 제자교회 청년들이 훈련받고 동역자가 되어 제자교회의 목회자, 더 나아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캄보디아 곳곳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이끄는 이 나라의 리더들로 세워주실 것을 품고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달려가기 원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미가 2:13)

### 기도제목

1. 새로 임명된 소그룹 리더들(찌보완, 삐싸이, 피롬, 삐싸이(여))이 말씀가운데 굳건히 서고 영혼을 사랑하며 양육하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2.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들을 날로 더하시며, 이후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이 굳게 서고 성장하기를
3. 새롭게 시작된 주일학교가 잘 정착되게 하시며, 교사를 세워주시길 (또한 물품들이 채워지길)
4. 정지웅, 조은영 선교사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주님 안에서 깊어지고, 탁월하며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5. 온유 주언이가 늘 건강하고, 성령 가운데 믿음과 성품과 지식이 잘 자라길
6. 중보기도자와 필드에서 함께 제자교회를 섬길 동역자들을 더해주시길 (찬양, 주일학교, 말씀양육, 식당봉사, 한글/영어)

언제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13 년 11 월 30 일

정지웅/은영, 온유, 주언 올림

